



은퇴를 앞둔 목회자들을 위한 지혜

다음의 열 가지 통찰은 목사-교회 지원부가 1-2년 내로 은퇴를 앞둔 목회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모은 결과들을 요약한 것입니다.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

- 1. 축하드립니다!**
이 힘든 직업을 이렇게 오래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.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매순간 이끌어 주셨습니다. 축하하고 기념해 마땅한 일입니다!
- 2. 은퇴 준비가 되었는지 평가하십시오:**
여러분이 자문해야 할 핵심 질문은 “여러분은 사역에 대한 비전/방향성에 대한 감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가?”입니다. 이 평가는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고, 귀하의 소명과 방향성을 더 명확히 보도록 좋은 질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 보십시오.
- 3. 여러분 스스로 준비하십시오:**
여러분에게 곧 다가올 은퇴와 관련된 실질적인/실행 계획상의 질문들을 목록으로 만들어 보십시오. 그리고 그 질문들과 관련된 지혜를 얻기 위한 타임라인을 만들어보십시오.
- 4. 그들을 준비시키십시오, PART 1:**
여러분이 사역에서 떠날 때 공백이 남지 않도록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을 준비시키십시오. 여러분에게는 그들과 나눌 지혜가 있습니다. 나누십시오.

5. 그들을 준비시키십시오, PART 2:
여러분과 회중들의 가까운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을 통해 그들을 준비시킬 수 있도록 평신도 리더들과 협력하십시오. 여러분은 발언권이 있습니다. 그것을 사용하십시오.

6. 은퇴를 발표하십시오: 전략이 중요합니다!
여러분이 은퇴를 계획한다고 발표하는 그 순간 여러분과 교회의 관계에 변화가 생깁니다. 여러분은 더 이상 그들의 미래의 일부가 아니며, 그러한 현실은 모든 종류의 대화에 나타날 것입니다. 그러므로 은퇴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십시오. 그러나 발표를 너무 미루지 마십시오. 전환기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7. 역할과 사람 간의 구분을 더 강화하십시오
그래서 역할이 사라질 때 여러분도 그 역할과 함께 증발해 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.

8. 여러분 소명의 핵심을 회복하십시오:
여러분의 사역 활동이 막바지에 이를 즈음에 여러분은 “사역의 버킷 리스트”를 해치우고 싶을 수 있습니다. 그런 목록은 보통 중요한데 아직 미완성인 사역 프로젝트를 모아 놓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이것들은 여러분 어깨의 무거운 짐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이 부르심 받은 소명의 핵심, 즉 여러분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일에 집중하십시오.

9. 어디에 가서 정착할 것인가?
은퇴 후 정착할 최고의 장소는, 어디가 됐든 후원 공동체를 여러분이 다시 찾거나 만들 수 있는 곳이면 될 것 같습니다. 때때로 그것은 가족과 가까이 있는 것을 의미하지만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. 가족들, 특히 젊은 사람들은 또 이동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사역하면서 소속감을 가장 크게 느꼈던 곳에 정착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.

10. 은퇴도 부르심입니다.
은퇴는 고된 일을 이겨낸 것이 아닙니다. 한 개인으로서의 여러분이 애석하게 축소되는 것도 아닙니다. 은퇴는 단순히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살고 나누었고 즐겼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새로운 기회입니다.